

■수능 D-50 학습 전략

취약부분 개념정리
실전감각 유지해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이 꼭 50일 남았다. 본격적인 마무리 시기에 돌입하는 지금부터가 학습방법이나 전략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는 마지막 기회다.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의 도움으로 'D-50' 학습 전략을 살펴봤다.

○수준별 마무리 전략=상위권 수험생은 수리 영역에서 변별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난이도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수리에 비해 방심하기 쉬운 영역인 만큼 매일 1~2회분의 모의고사로 시험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중위권 수험생은 취약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언어영역의 경우 수능기출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월별 모의고사 순으로 틀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수리영역은 개념이 부족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은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하위권 수험생은 남은 50일 동안 최선을 다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 영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으므로 자신 있는 영역에 집중하고 인문계 학생은 언어, 외국어, 탐구(1~2개)를, 자연계 학생은 수리, 외국어, 탐구(1~2개)영역을 중심으로 몇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리는 기본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략 10~12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포기

해선 안 된다.

○영역별 마무리 전략=언어 영역은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다. 듣기의 경우 수능시험에서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영역인 만큼 당일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꾸준히 듣기 연습을 통해 5문항을 완전 정복하도록 하자.

수리영역에서는 계산보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은 문제풀이보다는 교과서 위주로 기본개념과 법칙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뒀다.

외국어영역은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 성공의 80%가 어휘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휘력 부족은 3~4등급 또는 그 이하 수험생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몇몇 문장으로 내용을 추측하거나 많이 반복되는 어구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이다.

○조급함은 절대 금물=9월 모의평가 성적이 낮게 나왔더라도 빨리 잊어야 한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하게 사교육에 의존할 경우 스스로 마무리 학습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된다.

또 무리하게 새벽 2~3시까지 공부하는 것은 좋은 학습방법이 아니다. 밤 12시~새벽 1시 사이에 취침하고, 새벽 6시~6시30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남권 뱃길 귀성객 13만명

여객선 운항 900여회 늘려

추석 연휴를 맞아 목포와 완도 등 서남권 뱃길 이용 귀성객이 1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여객선 3척을 증선하고 운항횟수도 평소 보다 900여회 늘리기로 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서남권 항포구를 이용할 귀성객은 지난해 보다 7%가 증가한 13만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차량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3만5천여대로 추석 당일인 3일 가장 많은 8천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목포항만청은 귀성객과 차량의 일시적 폭주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 중 여객선 3척을 증선에 35개 항로에 64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운항횟수도 3천200여회로 평상시 보다 900여회 증회시킨다는 방침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lee@

신종플루·짧은 연휴·경기 불황

“추석 해외여행 꿈도 못 꾀요”

예약률 20%대 그쳐 ... 여행업계 ‘울상’

“추석 연휴 해외 여행, 올해는 꿈도 안 꾀요.” 신종플루의 여파에다 짧은 연휴기간, 경기 불황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올 추석연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줄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대형업체인 M여행사의 이날 현재 추석 해외여행상품 예약률은 20%선. 이 같은 저조한 예약률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시기보다 7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추석연휴 동안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 등을 가려는 여행객은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여행사 관계자는 “솔직히 예약 인원을 맡기다 부끄러울 정도로 추석 특수가 사라졌다”며 “그나마 신혼여행객들이 날마다 순전을 비롯한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행업계는 신종플루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격감한 것으로 보고 있

다. 대부분 여행사에는 신종플루 사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추세라면 지역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대형여행사인 H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3년 전만 해도 추석 연휴기간 외국을 찾는 여행객들때문에 해외여행 상품이 조기 매진, 정규 항공편이 아닌 전세기도 띄웠지만 올 추석에는 여행상품 예약률을 확인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부진하다.

이 여행사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 특수’가 아예 없다”며 “어떻게든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팀 장급들이 날마다 순전을 비롯한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행업계는 신종플루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격감한 것으로 보고 있

망자가 발생한 다음부터 예약해놓은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문의가 쇄도했다. 반면 여행상품 문의 전화는 거의 끊긴 상황이다.

수요 감소로 추석연휴 무안에서 출발해 외국으로 떠나는 항공편 예약률은 거의 제로(0)수준이다. 모 항공사 광주지점 국제선 담당자는 “예약률이라고 할 게 없다. 현재까지 단체 예약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종플루가 비상이라고 해도, 은근히 ‘추석 특수’를 기대했는데 여지없이 빛나갔다”고 하소연했다.

한 소규모 여행사 직원은 “신종플루 탓에 해외여행객이 사라지다시피 해 웬만한 여행업체들은 문을 닫을 정도로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다”며 “신종플루가 잠잠해 지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차 없는 날 ... 자전거가 최고” 광주시와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세계 차 없는 날’인 22일 광주시청과 상무지구 일대에서 기념식과 자전거 모기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 ‘빛고을기후지킴이 자전거실천단’ 회원들이 상무지구 도로에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종플루 감염 1만5천명 넘어서

9번째 사망자 발생 ... 증가세는 ‘주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하루 700명을 넘어서며 감염자 누계가 1만 5천명을 돌파했다. 또 신종플루에 감염된 40대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진 뒤 21일 만에 숨져 국내 사망자는 9명

으로 늘었다. 하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환자 증가세가 주춤해다 전체 감염자의 82%인 1만3천여 명이 완치된 것으로 나타나 신종플루에 대한 과도한 불안

감이 잦아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신종플루 검사 양성사례는 5천217건으로 집계돼 지난 5월 2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계 환자 수는 1만5천185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날 현재 휴교 중인 학교는 모두 8곳으로 1주일 전인 15일(34곳)에 비해 26곳 감소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1분 / 해질 18시 28분 / 달돋이 11시 01분 / 달질 20시 55분

추분(秋分)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5mm.

광주	흐린뒤 맑음	18/28℃
목포	흐린뒤 맑음	18/26℃
여수	흐리고 안개비	20/26℃
완도	비온뒤 맑	19/27℃
구례	흐린뒤 맑음	18/29℃
애남	비온뒤 맑	18/28℃
장흥	비온뒤 맑	17/28℃
고흥	비온뒤 맑	18/28℃
순천	비온뒤 맑	18/28℃
영광	흐린뒤 맑음	17/27℃
진도	비온뒤 맑	19/27℃
전주	흐린뒤 맑음	17/28℃
남원	흐린뒤 맑음	16/28℃
목성도	흐린뒤 맑음	19/24℃

지외선지수: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씨						
최저/최고	17/18	17/28	17/28	18/26	18/25	17/26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605-1114 / 대학원 605-1115

심뇌혈관질환 전문 진료센터
전남대병원에 들어선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들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전문 진료센터’가 오는 2013년 전남대 병원에 들어선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시설·장비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인 설비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병원은 총 91여여원을 들여 2013년까지 7, 8병동을 리모델링해 1만3천여㎡에 252병상과 74층, 196대의 최신장비를 갖추게 된다.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혈관·뇌혈관·심뇌재활·예방관리 등 4개 센터로 구성되며, 시설이 완비되면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뇌졸중, 뇌경색, 동맥경화증, 협심증 등 심뇌혈관질환 급성환자들이 전문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공군 제1전투비행단 ‘국군의 날’ 부대 표창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오는 10월 1일 건군 제6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부대 표창을 받는다. 제1전비는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공로를 인정받아 군수사령부 등 9개 부대와 함께 표창을 받게 됐다. 또 도연철(78)을 등 참전용사 4명에게 충무 및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산水土風

산수토풍 - 산수토풍 - 산수토풍

0621434-6001

은빛시바스 안내

06269-6590